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9차 회의 2월 23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9차 회의가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조미옥·이묘숙·강대석·김남기·이철갑·임효택·장우철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다.

젊은층 독자 발굴...3·1절 마라톤 세계적 행사로 키워야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서화가

아이들 인성교육 기사 생산 노력을
상무소각장 폐쇄 후 대책 마련 필요

▲김남기=2월22일자 23면 범조칼럼에서 이상미 검사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제목의 칼럼을 썼다. 이전 언급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인성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특성상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데, 부모와 자식간 갈등, 아동학대 등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 광주일보가 지역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관련한 기사생산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2월17일자 11면 '순천만정원 '명물' 스카이크루브 운행 2년만에 '애물단지' 전략' 기사에서 스카이크루브 철거 공사 비용만 7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접했다. 광주도 오는 11월 상무소각장 폐쇄되는데 시민들은 문화복지타운이나 복지관 등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잘못된 판단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의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면을 보인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은 언론사가 많다. 광주일보는 청소년과 청년 등 새로운 독자층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1절 마라톤 대회를 세계적인 스포츠행사로 키우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시간속을 걷다' 중년층 향수 자극
현상보다 내면 다룬 발굴 절실

▲강대석=2월4일자 1면 '국가철도망 구축...호남은 쏙 뺏다'는 기사는 충전을 앞두고 의미가 있었다. 정부 인사에서도 호남이 차별받고 있는데, 이런 국가기반시설도 차별을 받는 호남의 실정을 잘 담아냈다.

1월5일자 1면 '전남 갯벌 26년간 135㎢ 사라졌다'와 2월16일자 1면 '고령화 전남 주택도 노후화 심각한 광주 72%가 아파트' 등 기사는 전남의 생태와 고령화 문제 등 지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기사였다. 의미전달이 쉽고 재치있는 제목이 좋았다.

광주일보가 소개하는 신간 서적은 스마트폰 때문에 책을 읽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또 기획 '시간속을 걷다'는 중년 독자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기사다.

아쉬운 점은 2월19일자 10면 '경제 어렵다지만...60만원 초등생 가방 불타'라는 기사는 보이는 현상만 소개해 자칫 사치를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웠다. 현상보다는 내면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주길 바란다.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보행 불편 이유 금남로 조각상 이전
지역예술 확대 행정 지적 필요하다

▲이묘숙=1월26일 10면 '전남대 사진 공모전 우수작' 소개에서 너무나 멋진 사진이 흑백 지면에 배치돼 아쉬웠다. 독자와 공감을 위해 중요한 사진을 칼라 지면에 배치하면 좋겠다.

1월6일자 1면 '고령화에 가난...전남도민 팍팍한 삶'은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노인 한 달 생활비가 50만원 밖에 되지 않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2월19일자 10면 '경제 어렵다지만...60만원 초등생 가방 불타'라는 기사가 나오니 위화감이 드는 것 같다. 제목이라도 '지나친 소비는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2월22일자 7면 '금남로 조각상 18점 15년만에 옮긴다는데...' 기사를 보면서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조각상을 예술의 거리로 옮기는 것은 답답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풀리 3개를 25억원 들여 더 설치한다는 것과 달리,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업만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지역 예술을 확대하는 전반적인 정서가 난무하는 것 같은데, 광주일보가 이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조미옥
빛가람중학교 수석교사

'문화 원류' 스토리텔링식 전개 좋아
다문화 편견 우려...다양한 조명 필요

▲조미옥=최근 '아시아 문화원류' 기획기사를 보며 느낀 게 있다. 기사가 아닌 만큼 독자에게 쉽게 들어온다고 생각한다. 직접 발로 뛰어 만든 기사는 독자에게 간접 체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유익할 수밖에 없다. 또 단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닌, 스토리텔링 형식의 기사여서 전달이 쉬웠다. 여기에 지면에 배치된 훌륭한 사진은 신문의 콘텐츠와 질을 높여준다. 사진 한 장이 전달하는 의미가 큰 만큼 좋은 사진을 신는 것에도 노력해 달라.

광주·전남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편견도 많은 것 같다. 자칫 다문화가정이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줄수도 있다. 무조건 지원하고 도와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보다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2월12일 광일춘추 강담실 세계철출판사 대표의 칼럼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는 자유허가제를 도입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했다. 어른들의 물질 위주 문화 때문에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꿈꾼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어른이 함께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올해 광주일보는 학교·공교육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는 취재·보도를 했으면 한다. 현장에서 아이들·학부모를 만나 그들이 갖는 고민을 들어보

길 바란다.

▲임효택=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일보 스포츠면은 지역민에게 프로·엘리트 스포츠에 대한 선수들의 연봉계약, 타구단 이적, 은퇴 등 동향과 통계관련 내용을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지역 독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생생한 기사를 발굴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교육부 주장처럼 지역 교육재정이 가능한 여건을 갖췄는지,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이 어려워 미연성하는 주장이 타당한지 광주일보가 심도있게 보도해 학부모들과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한다.

또 학교에 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학업중단속려제'가 있다. 집안 사정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장기결석생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교사 1명이 30명 이상 학생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란 쉽지 않다. 더불어 사는 가치가 도외시되기 때문에 학교 내 인권의식이 낮아지고 교사와 학생 간 대화도 단절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화하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장우철=광주일보는 지난해 12월2일과 1월28일, 2월5일 등 3차례에 걸쳐 '롯데마트 월드컴즈 불발 전대'와 관련해 기사를 보도했다. 지역의 큰 이슈다. '대기업의 갑질'로 중소기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임에도 광주일보가 소홀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광주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공사 기간 및 공사비, 향후 운영비까지 자칫 잘못됐다가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최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커피파티'라는 조직을 만드는 등 대규모 움직임도 보인다. 각자가 주장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 2월22일자 22면에서 호남인권사랑방 정의희 의장 별세 기사가 나왔는데, 민주시민장으로 치러질 정도의 인물을 너무 작게 보도한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2월22일자 1면에 실린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사진 한 장이 독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크다. 앞으로도 좋은 사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

▲이철갑=지난 2개월간 광주일보 1면 기사는 심도있는 분석과 취재가 이뤄졌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1월1일자 여론조사 '호남에선 경쟁, 수도권에선 연대'라는 제목은 아련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보도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2월2일자 '광주 가전산업 위기를 기회로' 기사는 광주의 가전산업 위기라는 현안을 잘 짚어내고 분석까지 곁들였다. 앞서 1월 21일 '빛가람 혁신 도시 최고 불만은 교통' 등 충선을 앞뒤 정치기사가 1면을 장식하는 와중에도 지역의 이슈와 현안, 분석을 빼놓지 않고 1면에 배치해 좋았다는 평가다. 곧 총선이다. 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과 타지역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아련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바란다. 올해부터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농도'인 전남지역 농민들을 위해 이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주는 등 농민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김윤하=지난 두 달간 국내 최대 이슈는 4·13 총선과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다. 신년특집과 설날에 맞춰 실시한 여론조사는 적절한 시기에 보도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 돋보인 제작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서 많은 얘깃거리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역언론에서 유일하게 한 달새 두번이나 설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연속성을 갖지 못해 아쉽다. 미세하나마 지지도 변화와 추이 등을 표로 정리해 보여줬으면 독자들에게 더 흥미로운 자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2월15일자 1면 '글로벌 약재에 북한 리스크까지 경제 먹구름'이라는 기사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발빠른 기사였다. 하지만, 기사에 언급했던 우리 지역 두 기업에 대한 표정은 다루지 못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신년부터 새롭게 기획한 '파독 50년 호남출신 간호사 인생 스토리'는 50년 만에 간호사들이 직접 밝히는 파란만장한 삶을 보여줘 감동적이다.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유익한 기획물이다.

1월27일자 무등고 '제설유감'은 5년만의 폭설로 도심이 마비된 광주시 대책과 한계를 지적하는 따듯한 글이었다. 마지막으로 2월18일자 6면에서는 광주 일선 경찰서 국제운전면허증 왜 발급 못하냐 했더니 '발급유지 없어서'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면서도 대안을 촉구할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고 교감



현장감 있는 스포츠 기사 돋보여
보육예산·학교내 인권 심층 보도를

장우철
광주제능기부센터 사무처장



정의행 별세 기사 비중 낮아 아쉬워
22일자 1면 칠석 고싸움 사진 압권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1면 심도있는 분석·취재 기사 돋보여
'농업인 보험' 문제점·효과 등 알려야

김윤하
전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파독 간호사' 인생 스토리 감동적
총선 여론조사 연속성 없어 아쉬워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 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대리석외벽, 대리석외벽, 홍남무늬, 스텔라다워 외벽, 벽면연결(매체배달)

시공후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